

# 지역민들 대상 생태교실 '호응'

전북대 자연사박물관, '자연환경과 인간' 주제 주1회씩 무료교육  
"생태계·생물다양성에 알기 쉽게 설명해줘 매우 유익한 시간"

전북대 자연사박물관(관장 박진호)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생태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환경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11일부터 주 1회씩 총 6회에 걸쳐 무료로 이뤄졌다. 10명이 참여해 발열체크와 거리두기, 매 회 교육실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는 김익수 명예교수(생물학과)와 김세천 명예교수(조경학과)가 각각 3회씩의 강연을 통해 생태적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그간 경험을 나눴다. 수강생 김지연 씨(58)는 "환경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살아갈 후대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이번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며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대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줘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진호 관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교육에 참여해 준 수강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대학이 갖고 있는 인·물적 자원을 활용해 자연 자원의 가치를 공유하고 자연과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자연사박물관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생태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은 생태교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립민속국악원이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제작한 제6회 대한민국 민속악포럼이 18일 국악의 발전을 위한 국립기관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방송을 진행한다. (사진=국립민속국악원 제공)

## 국악 발전 위한 국립기관의 역할·방향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이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제작한 제6회 대한민국 민속악포럼이 오는 18일 국악의 발전을 위한 국립기관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방송을 진행한다. 포럼은 18일 오후 1시와 9시, 20일(일) 오후 2시에 국악TV(kt올레tv ch.251, LG유플러스 ch.240, LG헬로비전 ch.273)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며, 녹화방송은 24일 국립민속국악원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금희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왕기석(국립민속국악원 원장), 정재숙(문화재청 청장), 김희정(상명대 교수), 손혜리(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송현민(월간객석 편집장), 조정래(영화감독), 황병준(사운드미러코리아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국악원 왕기석 원장은 "포럼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정보들을 바탕으로 국립민속국악원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 방향 모색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정책포럼 온라인 개최  
예술인복지법 제정·성평등 담당 행정조직 체계 필요 주장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소장 이수인)가 16일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전북여성정책연구소와 전북지역 5개 문화재단(전북문화관광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고창문화관광재단), 및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의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조동용 의원과 도와 시·군 소관부서 공무원, 문화예술 관계자들, 여성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성차별구조가 성폭력의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계의 관계자들과 이에 공감하는 전북지역 여성계의 참여 속에

서 개최됐다. 전북여성정책연구소의 이수인 소장은 이 포럼의 취지를 "첫째, 성차별적인 문화예술계의 실태와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짚어보고, 둘째는 성차별 없는 안전한 문화예술 창작 환경의 조성 방안 모색"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포럼은 진명숙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부산문화예술계 반(反)성폭력연대의 송진희 씨는 "지역문화예술계 성평등 조례의 필요성과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 보호를 위한 예술인복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의 송원은 씨는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의 특징과 성불평등이 심각해 여성 예술인 활동이 힘든 문화예술계의 현황"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토론에 나선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은 "문화예술계의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개선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성평등 정책을 위한 조례 개정과 성평등을 전담하는 행정조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동용 도의원은 문화예술계에 성폭력 상담지원센터 운영, 성폭력조항이 누락된 전북 예술인복지조례의 개정, 문화예술계 보조사업과 성폭력 이슈의 연계를 제안했다. 끝으로, 도인정 전북도 성별영향평가 컨설팅단트는 "문화예술계의 성불평등 구조를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시정해 나가자"며 문화예술계에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호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전북문화관광재단, 내년 상반기 정기 대관 모집

전북도예술회관 내년 1월 4~20일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2021년 전라북도예술회관 상반기 정기 대관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1월 4일~20일까지 이메일(jtct410@naver.com)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홈페이지(www.jtct.or.kr)에서 대관 신청서와 계획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상반기 정기 대관은 2021년 3월 5일부터 7월 1일까지 약 4개월 간 매주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7일 단위로 대관할 수 있다. 대관 시설은 기스라1(95평), 기스라2(42평), 차오름1(67평), 차오름2(41평), 미리내(66평) 등 총 5개의 전시실이 있다. 한편, 전라북도예술회관은 많은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우수한 작품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매년 상·하반기 정기대관과 수시대관

공고를 통해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경영지원부(063-230-7414)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정세랑·이소연, 알라딘 독자가 뽑은 '2020 한국문학의 얼굴'

정세랑 작가와 이소연 작가가 알라딘 독자들이 선정한 '2020 한국 문학의 얼굴'로 뽑혔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달간 진행된 독자투표 결과 소설 부문에서는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가, 시 부문에서는 이소연 작가의 '나는 천천히 죽어갈 소녀가 필요하다'가 각각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동안 출시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뉴스

제4회 전라북도 아리움 어버이 합창 경연대회

아름다운 아리아의 선율

**일시:** 12월 26일 저녁 7시부터

**장소:** 서도프라자 10층 '이룸' 공연장

**주최:** 전주매일신문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